

# 한국 도시시의 소외의식\*

신 진\*\*

차 례

- |                |                |
|----------------|----------------|
| I. 서론          | IV. 자기와 세계의 상실 |
| II. 문명에서의 소외   | V. 결론          |
| III. 사회로부터의 소외 |                |

국문초록

도시 문제는 현대시의 주요 주제이다. 도시의 삶을 제재로 삼는 도시시의 핵심은 소외에 있다 할 수 있다. 소외의 유형은 도시문명으로부터의 소외, 인간 사회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등 셋으로 나눌 수 있거니와, 한국 도시시는 이에 따라 문학사적 맥락을 체계화할 수 있고, 각 유형의 특성과 맥락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 도시시의 ‘문명에서의 소외’는 1920년대부터 문명에 대한 갈망과 거부라는 양방향의 동시 작용하는 모순에서 시작된다. 해방후에는 문명비판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문명의 기계주의와 자동화에 의해, 전통적 삶에서도 문명사회에서도 쫓겨나는 자아 고립, 주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부재의 익명성에 빠져들게 된다.

둘째, ‘사회적 소외’는 일제하에서부터 사회체제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도시적 삶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 도시시에 나타난 사회적 소외의 정조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아와 세계 상실의 소외’는 20년대 도시시에서부터 내재되어 온 바이지만, 1950년대의 시에서 훨씬 구체화된다. 전통 윤리가 사라지고 범죄가 일상화한 도시에서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결합하지 못하고 파편화 시킨다. 인간적 가치의 상실, 무의미의 소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인들에게는 일제와 미군정 시기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일찌감치 고도산업사회에 못지않은 정신적 억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도시시로 하여금 복합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시의 인간성 자각과 탐구의 문제는 산업화 이후, 1980년대에 본격화한 것이라기보다, 1920년대에서부터 형성된 한국 현대시의 관습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주제어 : 도시시, 소외, 도시문명에서의 소외, 사회로부터의 소외, 주체 부재, 기계적 반응, 자기로부터의 소외, 가치 상실, 현대시의 관습.

## I. 서론

근대화는 국토의 도시화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근대화의 산물인 도시는 문제적 공간이고 근대시 창작의 주요 계기가 된다. 현대 시인들이 극복해가야 할 태생적 장애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시가 제작되고 계승된다.

도시시(urban poetry)란 도시 체험, 도시의 삶, 도시사회의 체계 문제

를 글감으로 삼는 시로서, 모더니즘 시와 발흥의 퀘를 대체로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근대 문학사에서 도시시가 문학사적 의의를 획득하면서 등장한 것이 30년대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사회의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70년대 이후에 실제로 가능했다고 생각되고 있다.<sup>1)</sup> 특히, 1980년대 이후 도시시가 주목되고 있는 바, 이는 세계에 대한 예술적 저항이고 이단적 저항이며, 인간성의 자각과 탐구의 문제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sup>2)</sup>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적 자아의식에 의한 자유시가 제작된 것은 1920년 전후 동인지 시대부터라 할 수 있고, 우리 현대시의 도시 체험도 이때부터라 조금 앞당겨 볼 수도 있다. 1920년대 시인들에 있어서도 도시풍경을 관찰하는 자의 우울과 권태, 시선의 충격과 혼란은 도시체험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고<sup>3)</sup> 전통 사회에서 급작스레 근대적 도시와 맞닥뜨린 조선인들에게 도시란 외경의 대상인 동시에 충격과 공허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도시는 대개 향락적인 데카당스의 공간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와 상실이 교차하는 이기(利己)의 장소로서 기계화, 비인간화의 사회체제를 생산한다. 여기에, 자생한 것이라기보다 일제라는 타율에 의해 강요되다시피 한 도시, 6·25전쟁과 개발독재와 함께 성장한 도시를 배경으로 성장한 우리 도시시는 그 주된 정조가 박탈감, 결핍감, 상실감, 무력감, 고립감, 불안, 공허 등등 소외(alienation)란 말<sup>4)</sup>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었다. 소외(疎外)란 말 자체 근대 사회의 성립—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

- 1) 오세영, 정한용, 김준오 등의 관점.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 비평사, 1992. 117-8쪽.
- 2) 김준오, 위의 책, 115-6, 139쪽.
- 3) 남기혁, 『1920년대 시에 나타난 도시체험』, 『겨레어문논집』 제42집, (겨레어문학회, 2009.6). 213쪽.
- 4) 마르크스(K. Marx)는 소외를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 의하지 않고 자기 뜻에 반하면서 자기 위에 군림하는 이질적인 힘에 의한 상태”<sup>1)</sup>라 보았고, 에리히 프롬(E. Fromm)은 “스스로를 따돌림 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 양식”<sup>1)</sup>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김병익 역, 『전전한 사회』, 범우사, 1991, 114-5쪽.

반 이후에서야 개념화된 말로,<sup>5)</sup> 도시시의 핵심은 결국 이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소외란 말이 넓은 의미망을 갖듯, 도시시도 그 모습이 실로 다양하다. 도시의 내용을 가장 단순하게 둘로 나눈다면 도시의 부정적 수용과 긍정적 수용 등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다수 도시시가 ‘소외’란 말로 대표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체험을 제재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시시의 소외의 양상을 조명하고자한다.

소외의 유형도 다양하다. 그래도 마르크스, 무타이 리사쿠(務台理作), 김용익 등의 분류와 사회학에서의 일반적인 분류 등을 종합하여 요약한 것을 재정리해보면 소외는 첫째, 도시문명으로부터의 소외. 둘째, 사회로부터의 소외. 셋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자기와 세계상실의) 소외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6)</sup> 하지만 근대화, 도시화의 소산인 소외는 매우 복합적인 발생 원인을 안고 있어서 실제로 있어 그 유형을 뚜렷이 구분하기 쉽

5) 장병호, 『소외의 문학 갈등의 문학』, 시와 사람, 2008, 40쪽.

6) 장병호, 위의 책, 54-56쪽. 기존 소외의 유형을 정리하여 (1), 자기분열, 자아로부터의 소외 (2), 공동체의 상실로 인한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의 노동자의 소외 (4), 물질주의의 팽창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인한 소외 (5),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치적 사회적 힘으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나누었다. 이 중 (3),(4)는 본고의 문명으로부터의 소외, (2),(5)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1)은 자기로부터의 소외에 포괄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의 소외는 문명으로부터의 소외에,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의한 노동의 소외는 사회적 소외에 해당한다. (4)도 대체로는 문명에서의 소외에 해당하나 주체의 상실이나 분열의 문제와 결부될 때에는 세계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 해당한다. 그런데 필자가 분류한 소외의 3유형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별로 없는 안이라 생각된다. 이는 우리 도시시의 검토결과를 특히 무타이 리사쿠와 김용익의 다섯 가지 유형을 결부하여 간소화 해본 것이다. 예컨대, 무타이 리사쿠의 목표상실에 의한 소외는 자기 상실의 소외로, 공동체 분해로 인한 소외와 정치로부터의 소외는 사회적 소외로, 대량생산과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한 소외는 문명으로부터의 소외로 간소화한 데 지나지 않기에 무리 없이 소외의 분류 체계로 이용할 수 있다 하겠다.

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도시시의 소외현상 파악을 위해 적용하려는 위의 세 유형은 기존 학자들의 분류를 단순화하여, 한국 현대 도시시에 나타나는 소외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안이 되는 동시에, 한국 도시시에 나타나는 소외의 3 층위, 또는 세 개의 축을 파악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세 유형에 따라 20세기 우리 도시시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과 통시적 맥락을 조명하여, 도시시의 문학사적 맥락을 체계화 하며, 자본과 권력에 대한 우리 현대시의 대응양식과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현대시의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II. 문명에서의 소외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 한국 시는 역사, 사회에서 유리되어 있었다. ‘민족·계몽’이라는 큰 화두를 지닌 개화기 시가에서 벗어나, 문학의 독자성(獨自性) 구현이라는 명분아래 개인의 신변을 소재로, 과거를 회상하고 토로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도시를 제재로 한 시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내재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 문물에 대한 외경감과 당혹감이 앞세워진 측면도 있었다.

주요한의 <지나(支那)소녀>(『창조』 4호, 1920.2)는 1919년 5월, 상해 망명시기에 쓴 시. 도시 처녀의 회고 가는 팔, 실크 스타킹을 신은 발목의 곡선, 손가락에 감긴 손수건, 도시 처녀의 방황하는 눈빛 등 신기한 도시풍물을 일괄하였다. 김소월의 시 <서울의 거리>(『학생계』 1920. 12)는 식민지 근대화가 연출하는 문명적 풍광과 그에 노출되는 주체의 충격과 혼란을 그려내었다. 도시를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비유한 이장희의 <사상(砂上)>(『신민』, 1925.9)과 <겨울의 모경>(『신민』, 1926.1) 등은 감

각적인 표현이 돋보이긴 하나, 역시 도시 군중의 모습에서 동경심과 함께 야릇한 쓸쓸함-소외를 느끼는 시였다.

시민대혁명을 이룬 프랑스에서도 오랫동안 ‘시민적(civil)’이라는 개념은 ‘무례하고 문명화되지 못한 것’에 대비되는 ‘공손하고 세련된 사람과 행동’을 의미했다. ‘시민적/비시민적’의 개념구분은 ‘문명화된(civilized)/문명화되지 않은(uncivilized)’의 구분과도 유관하였다. 시민사회는 문명화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들을 통치하는 위계적 사회이기도 했다.<sup>7)</sup> 식민시대의 도시는 일제라는, 문명으로 세련된 통치 집단과, 조선인이라는 문명화되지 않은 층을 압도하는 위계의 장이었다 할 것이다.

당대 식민지 청년 지식인의 도시문명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는 <카페·프랑스>(『학조』.1926.6)를 위시한 정지용의 도시시라 할 수 있다. 그의 <슬픈 인상화>(『학조』.1926.6), <황마차>(『조선지광』.1927.6) 등은 모두 한국이 아니라 이미 도시문명이 자리 잡은 일본의 교토(京都)에서 창작된 시들이기도 했다.

옹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두루 손 장명등  
카페·프랑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빗썸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카페·프랑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7)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38쪽.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오 패롤[鸚鵡] 서방! 굳 이브닝!”

“굳 이브닝!”(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금향(鬱金香)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更紗)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료!

나는 자작(子爵)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희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오, 이국종(異國種)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정지용<카페 프란스>전문

현대적 문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 내적인 소외에  
달아있다. 식민지 종주국의 대도시에서 느끼는 이국정조와 고립감이 주  
제를 이룬다.

‘카페’는 도시 부랑자들의 임시적 휴식처. 루바쉬카를 입은 사람을 위  
시한, 문명의 삶에 찌든 소외된 자들. 카페 프란스로 가자는 외침은 도시  
문명에 다가가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 상황을 말해준다. 뺨처럼 가는  
밤비는 흐느적거리고 있는 청년들의 자화상이자, 자조와 연민의 은유이  
다.

앵무새에게 인사를 하는 흰 손의 슬픔,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뺨’ 등  
차가운 도시문물에 화자의 무력감, 자조(自嘲)가 대비되면서 소외를 가

중시키고 있다. ‘내 발을 빨아다오’라는 요청에는 ‘이국종 강아지’(문명)를 갈망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퇴행적 소외가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황마차>, <슬픈 인상화> 등 시에서도 이러지거니와, 김광균의 <와사등>, <광장>, <땃상>, <눈오는 밤의 시>, <도심지대>, <다방> 등의 시에서도 계승된다.

이무렵 통치 권력에 의해 도시 공간이 재배치되면서, 서울, 부산, 평양 등 조선의 대도시에도 자동차와 전차가 대로를 질주하는 등 근대도시 풍경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sup>8)</sup> 시적 대상은 일본의 도시에서 조선의 도시로도 확장되고, 도시는 문제의 공간으로서 현대시에 본격 편입된다.

1920-30년대의 도시시는 추상적인 상태의 갈등 속에서 문명의 내면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타자들과의 소통이나 관계성 모색에 이르지 못하는 채 공통적으로 도시문명에 대한 충격과 외경감, 근원 상실의 우울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문명에 대한 소외자로서의 정조가 한층 구체화되는 것은 6·25 전쟁기의 도시시이다. 일제하의 그것이 식민통치하의 도시문명에 대한 동경과 소외라는 양면적 체험이었다면 1950년대의 도시시는 전쟁으로 인한 문명의 파괴와 그것을 감당해 낼 능력이 없는 무기력에서 오는 소외를 절감해야 했다.

후반기 동인 중에서 김경린, 박인환 등을 들 수 있다.

아무 잡음도 없이 멀망하는

8) 서울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가로의 재정비 사업, 남대문, 서울역, 황금정(을지로), 남촌 진고개의 도로를 확장하는 등 31개 노선의 도로정비확장사업을 벌이고 일본인 거주지역인 남촌과 조선인 거주지역인 북촌의 공간분할이 이루어졌으며 남촌을 중심으로 상업가와 금융업가가 형성되는 등 근대도시의 면모를 띠게 되었다.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356-398 쪽 참조.

도시의 그림자  
 무수한 인상과  
 전환하는 연대(年代)의 그늘에서  
 아 영원히 흘러가는 것  
 신문지의 경사(傾斜)에 얽혀진  
 그러한 불안의 격투

박인환 <최후의 회화(會話)>에서

관념적인 소외의 언어에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 공포, 절망감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한 바라이에티>, <우울한 상송> 등도 위와 같은 정조의 도시시들이다. 건설하는 도시가 아니라 파괴되는 도시, 문명에 의하여 파괴되는 문명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전환하는 연대’의 ‘불안한 격투’로 파악되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이 시기 민재식의 <미완성실제2>, <불협화음>, <금요일> 등의 시에도 “모두 빛진 몸(미완성실제)”, “무수한 미스 김들(불협화음)”, “엑스레이에 비추인 세루로이드”같은 얼굴들(금요일) 등 익명의 군상들이 등장하고, 문명생활의 무료함, 도시적 관능, 개인의 고립감 등을 기본 정조가 되고 있다.

1960-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에 더하여 월남전, 해외취업 등으로 우리 자본이 축적되던 시대. 농경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의 지각변동은 삶의 양식을 근본에서부터 뒤바꾸어 놓았다. 도시는 풍족한 삶을 보장해줄 듯하지만 비정한 비인간화의 사막과도 같은 곳. 건설, 개발, 대량생산과 소비 등 도시생활은 각종 범죄와 비리는 물론, 비인간화, 사물화, 불평등,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자본과 권력이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위력을 발휘하면서 권태와 우울,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추방당의 공포를 가중시킨다.

1960년대 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근대화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환경파괴 현상과 보금자리를 잃은 소외자의 심경을 쫓겨나는 비둘기

에 비유한 시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봉래의 <청계천>은 더 현장적이다.

역사가 분실한 온갖 사물이  
오물처럼 흐르는  
이름만 아름다운  
이제  
이름만 남은  
청계천이여  
청계천이여  
떨어지는 빗소리는  
못치는 소리 같다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신나게 못을 쫓는 로마 兵士의  
바로 그 소리 같다  
청계천에  
빗물이  
숨가쁘게 차면  
나의 5십년은  
분실물로 가득 차진다

- 이봉래, <청계천3>에서

비가 내리면 상가며, 가정에서 버린 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청계천.

청계천(淸溪川)은 원래 맑은 시내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물로 뒤덮여 있다. 오염된 청계천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예수의 손목에 쇠못을 박는 로마군사의 못질 소리 같다. 인생 50년이 헛되게 느껴진다. 도시문명의 횡포에 화자 역시 일조를 한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문명으로부터의 소외인 동시에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산업과 경제의 수준이 궤도에 들어서는 1970년대 말 경에 이르면 도시 문명의 기계화, 자동화로 말미암은 삶의 타율성은 도시민의 내면에 침윤되어 주체상실의 소외에 이른다.

에스컬레이트로 빠져나가는  
남포동 밤길  
호주머니마다 하모니카 울리는  
발걸음 짹짹  
백화점 뒷길  
외팔의 캥거루  
오줌누는 벽돌담 골목길에서  
미숙김 울지마,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잖아  
없는 사람끼리 이밤을 갖자  
짹짹 짹 짹 씹어라  
에스컬레이트로 빠져나가는 남포동 밤길  
우리는 전쟁의 밖에서 사는  
평화वाद도 헤어져 사는  
분노에서도 쫓겨나 사는  
캥거루, 헛것 같은 짐승  
짹짹 짹 어디서 소금내는 깨어져  
흩어져 내려쫓는가?  
눈물을 나는 갖으마  
내 갈길은 미쳤다 김 네가 가도 마찬가지다.  
짹짹 짹 짹 씹어라  
갖지 않은 것을 버리기 위하여  
짹짹 짹 짹  
남포동에 울리는 하아모니 커

신진 <남포동밤길>에서

에스컬레이트가 운행되듯 습관처럼 흐르는 인파. 기계적 삶의 공허에

빠진 도심의 밤이다. 이제 전쟁에도, 평화에도 가담하지 않는 도시민의 삶의 길은 누가 가도 목적이 없는 가나 마나한 길. 눈물 흘리며 껌을 씹으며 ‘미숙감’, ‘미섯다감’ 등 놀언(訥言)에 빠진 채 도시의 밤거리에는 문명으로하여 인간을 상실한 공허의 하아모니로 가득하다.

1990년대 도시의 삶을 조롱하면서, 문명에서의 소외를 풀어낸 시인으로 유희를 들 수 있다.

온갖 심혜진 최진실 강수지 같은 황홀한 종아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부정관(不淨觀)이라도 해야 하리 옛날 부처가 수행하는 제자에게 며칠  
을 바라보라 던져준

구더기 끓는 절세미녀의 시체, 바람부는 날이면 필력은 스커트 밑의  
온갖 아름다움을, 심호흡 한번 하고, 부정해보리 내 눈은 윈트겐처럼 번쩍  
한 때의 해골바가지를, 뺨다귀를, 찍어내려고 눈버둥친다 내 코는 일순  
무쓰향에서 썩은 피고름 냄새를 맡아내려고 쿵쿵 벌름댄다, 정말 이리다  
이 압구정동 네거리에서 내가 아라한의 경지에……? 아서라  
마음속에 영원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것 같은 다리 하나 있다  
바로 이 순간, 촌철살인적으로 다가오는 종아리 하나 있다 압구정동  
배나무숲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 중학교 운동회 때  
트로피를 휩쓸던 그애, 오천 원짜리 과외공부 시간 책상 밑으로 내 다리  
를 쿡쿡 찌르던,

오천 원이 없어 결국 한 달 만에 쫓겨난 그애, 배나무들을  
뿌리째 갈아엎던 불도저를 괴물 아가리라 부르던 똥그런 눈망을  
한강다리 아래 궁글던 물새알과 웃음의 보조개 내게 던지고 키들키들  
지금의 현대백화점 쪽으로 종다리처럼 사라지던, 그 후로  
영영 붙잡지 못했던 단발머리 소녀의 뒷모습  
그 눈부시던 구릿빛 종아리

유희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에서

문명 사회의 세속적 즐거움과 허위로 가득 찬 공간, 압구정동이 배경이다. 부정관(不淨觀)이란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육신의 덧없음을 깨우치고 이성에 대한 정욕을 없애는 수행법. 화자는 상품화한

도시인간의 모습에서 부패하는 시신을 연상하며 생명체로서의 본능마저 상실한다. 문득, 배나무 밭을 노루처럼 질주하던 원두막지기의 딸을 연상한다. 단발머리 소녀의 그 구릿빛 좋아리-. 사라져 버린 생명의 속살, 개발 이전의 건강한 삶을 그리워하는 순간이다. 문명에서의 소외가 생명력 상실의 지경에 이르고 이는 다시 사회적 소외와 연결되고 있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물질에 지배받지 않을 수가 없다. 물화된 시민들의 삶은 스스로 익명의 존재방식을 좇게 되고, 이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협한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문명으로부터의 소외는 자아와 세계 상실의 소외, 사회적 소외와 중첩되고 심화된다 하겠다.

### Ⅲ. 사회로부터의 소외

문명에서의 소외나 사회적 소외는 모두 도시적 삶에 적응하는 단계의 대응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소외란 도시적 삶의 시스템에 의해 본연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상실하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스스로의 욕망을 포기하지도 다른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도 못한 채 무기력과 고립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1920년대 도시시의 사회적 소외는 동경의 도시사회가 일제의 것일 뿐이라는, 조선인으로서의 단절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제국의 대도시에서 사회적 소외를 느끼는 점에서는 정지용의 시와 공통적이라 하겠지만 정지용의 경우, 도시문명에 대한 개인적 애상(哀傷)을 주제로 한다면, 이상화의 시는 도시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성찰을 보여준다.

오늘이 다 되도록 일본의 서울을 헤매어도  
나의 꿈은 문둥이살 같은 조선의 땅을 밟고 돈다.

예쁜 인형들이 노는 이 도회의 호사스런 거리에서  
 나는 안 잊히는 조선의 하늘이 그리워 애닦은 마음에 노래만 부르노라.  
 이상화 <도-교에서>에서

1922년 가을에 썼다고 부기된 채 『문예운동』 창간호(1926.1)에 발표된 이 시는 일본제국의 수도, 대낮같이 밝은 밤을 헤매어 다녀도 해금강의 달, 진흙과 집풀, 흐린 호롱불의 조선이 그리운, 식민지 청년으로써의 사회적 소외감이 내면화 되어있다. 문명에 대한 막연한 고립감이라기보다 사회적 부적응이 모티프이다. 프란츠 파농의 말마따나 모든 식민사회는 경제적 소외 상태에 짓눌려 있으며, 원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찾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소외로 인한 심인성(心因性) 장애를 촉발한다<sup>9)</sup> 할 수 있다.

이상의 <오감도 시 제1호>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경향의 실험성 외에도 식민지 도시사회를 살아가는 내면의 절망감이 극명하게 나타난 시라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상황은 인구의 도시 집중과 도시 실업자가 격증하던 시기이다. 일본인들이 화이트칼라, 기능공, 경영자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국인은 노동과 자본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어 서울 거리를 헤매었다<sup>10)</sup>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길은막다른콜목길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9) 최정섭 역, 『식민주의와 소외』, 『프란츠 파농연구』, 한마당, 1981, 38쪽.  
 10) 김영모, 『일제하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623-627쪽.

제5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6의하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7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8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9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0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12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제13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혔소.  
 (다른사정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쫓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쫓소.  
 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쫓소.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쫓소.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를질주하지아니하야도쫓소.

화자는 모든 의욕이 방출된 방관자이다. 도시의 도로-사회적 관계의 소통로는 열린든 막히든 마찬가지. 가치의 혼란, 아노미(anomie)<sup>11)</sup> 상태이다.

도로를 질주하는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하고 있다. 세계를 향해 열린 듯한 대로가 막다른 골목일 뿐이라는 역설, 길으로는 뚫린 골목이라 해

---

11) 아노미는 규범의 부재를 가리키는 현대 사회학의 주요 개념의 하나. 근대인의 특징으로서 무질서와 무절제, 인간의 열망에 대한 문화적 기준의 부재. 신념의 혼란과 갈등. 타자에 대한 자아의 소외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정규희,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연구』, 『동남어문학』 제25집, 동남어문학회, 2008, 253-254쪽.

도 막힌, 일정한 질서와 공동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루카치의 말대로, 산업의 발달로 인한 도시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깨고 현실을 불가해한 괴물로 만듦으로써 주체를 수동적인 관조자로 떨어뜨리고 만다.<sup>12)</sup> 주체의 능동성이 사라진 사회, 사회적 결속의 끈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토대가 붕괴된 내면의 그림이다.

일제가 몰려난 해방공간의 도시사회는 조허림의 <이국의 서울>, 김상훈의 <정객(政客)>, 김상민의 <황혼의 가두>, <여직공> 이성범의 <수도(首都)> 등<sup>13)</sup>에서 보듯 미국문화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았다.

수도의 거리거리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모두가 백안(白眼)  
햇빛 고루 비칠 땅에  
슬기없는 유명들이 횡행합니다  
영사막의 인물들을 선생님  
이차원에서 끌어내 주세요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을 위하여  
교지(巧智)와 기만을 배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수도로 수도로 모이든다  
죄악의 꽃이 매독처럼 번지어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땅  
윤락의 윤리  
자유경쟁이란 어찌하여 만들어진 범죄의 씨이나  
이성범<수도>(신천지,1946.4) 일부

도시는 자유경쟁이란 미명 아래 기만술이나 양성하는 죄악의 근거지

12) Geor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박정호, 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86, 249쪽.  
13) 오현주 엮음, 『해방기의 시문학』, 열사람, 1994. 참조.

이다. 삶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지배되며, 인간 사이의 인정 어린 관계성이 파괴되고 사랑을 파는 윤락이 합리화 된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억압구조는 인간의 삶을 생명 없는 2차원의 평면으로 타락시키며, 거대한 사회적 조직의 부속품처럼 인간을 조종한다.

우리 시에 있어, 1920년대에서 50-60년대까지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미리부터 고도산업사회에 못지않은 정신적 억압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를 제재로 삼는다면, 시의 경향과 양식을 막론하고 애초부터 깊은 사회적 소외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

모더니즘계 시의 사회적 소외는, 1952년 부산에서 ‘후반기’ 동인을 결성한 김경린, 박인환, 김수영, 조향, 김규동 등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기성관념에 대해 불신하면서, 부조리한 사회와 현대의 불안에 대한 실존적 인식을 기치로 내걸었다.<sup>14)</sup>

오늘도 성난 타자기처럼  
질주하는 국제열차에  
나의  
젊음은 실려 가고

보랏빛  
애정을 날리며  
경사진 가로(街路)에서  
또다시  
태양에 젖어 돌아오는 벗들을 본다.

옛날  
나의 조상들이  
뿌리고 간 설화가

14) 『주간국제』, 국제신문사, 1952. 6. 16. 참조

아직도 남은 거리와 거리에

불안과  
예절과 그리고  
공포만이 거품 일어

꽃과 태양을 등지고  
가는 나에게  
어둠은 빗발처럼 내려온다.

또다시  
먼 앞날에  
추락하는 애정이  
나의 가슴을 찌르면

거울처럼  
그리운 사람아  
흐르는 기류(氣流)를 안고  
투명한 아침을 가져오리.

김경린 <국제열차는 타자기처럼>전문

김경린의 대표작에는 현대문명이 주는 속도감과 불안감, 전통적인 요소와 미래의 기대가 뒤엉켜있다. 국제열차에 젊음은 유혹되고,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빗발처럼 쏟아지는 어둠과도 같은 불안한 흔들림, 꽃과 태양을 등진 절망 속에 새로운 기류로 다가오는 미래적 당위가 마찰한다. 타자기, 열차 등의 속도감이나 기계주의적 현대성이 ‘조상과 설화가 남은 거리’, ‘투명한 아침’과 같은, 막연한 기대와 시적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소외를 자위하는 형식이다.

도시사회에서의 긍정적 전망과 소외 사이의 마찰에 의한 갈등이 유발하는 소외는 김경린의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송옥의 <하여지향> 등의 시에서도 볼 수 있거니와 이

는 도시적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 할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전복의식을 가졌던 좌익계에 대한 모더니즘계의 대응일 수도 있고, 현실적 혼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1980년대까지 한국 도시시의 맥락의 하나는 도시사회에 대한 거부와 기대 사이의 심리적 갈등에 있다 할 것이다.

60년대에 들면 일제와 해방공간에서 보이던 도시화 과정의 허구성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증언이 서사 장시 <금강>의 후화(後話) 형식으로 쓰여진 신동엽의 <종로5가> 같은 시에 이어지고, 개발독재 즉, 외국 자본과 중앙집권적 정치권력이 결합한 도시 집중성은 70년대 김지하의 <오적>을 위시한 일련의 담시와, <서울길>같은 시에서 분노에 가까운 사회적 소외의식을 담게 된다.

박목월의 <당인리근처>, <가정>, <일상사> 등 일련의 시를 통한, 자연 시인으로부터의 변신도 사회적 무력감과 그로 말미암은 자족적 일상성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항상 평화적 호혜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고 첨예한 갈등을 보인다. 국가권력은 전통 사회의 지배 질서를 해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사회의 모든 개인과 집단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범 앞의 평등’이란 곧 모든 사람이 국가 권력 앞에서 평등하게 무력함을 의미한다.<sup>15)</sup>

1980년대 전반-권위주의 정권과 민주·민중세력간의 싸움이 막바지에 달했던 와중에도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했던 새로운 세대는 도시에 적응하는 대신 심한 무력감, 자기 연민을 겪어야했다.

저것 보십시오. 지하철 4호선이 달리고 있지요. 저기 중생들 사이 매 달려 자빠지지 않으려고 출입구 쇠봉에 찰싹 달라 붙은 사내가 시인 하

15) 신진욱, 앞의 책, 49쪽.

재봉입니다. 저 인간은 아직 아침도 제대로 챙겨 넣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입가에 젖물 같은 게 허영게 말라붙어 있지요. 아파트에서 급히 뛰쳐나오면서 찬 우유를 밥통에 넣다 들이붓다 보니 콧구멍이고 바지가랑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철철 흘러면서 7:30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운택,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2>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기계적 시간에 얽매인 도시인의 물화한 삶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 모습은 시에 등장하는 하재봉 시인이기도 하고, 시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의 일상화, 평준화의 실감이다. 사회적 소외는 타자에 대한 조롱인 동시에 자기에 대한 조롱이며 풍자가 된다.

80년대 후반 이후, 도시사회에서의 소외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을 풍자한다.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끝에 대해  
끝까지 간 의지와 끝까지 간 삶과 그 삶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귀가할 때마다  
하루 열여섯 시간의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육체와  
동시 상영관 두 군데를 죽치고 돌아온 내 피로의  
끝을 보게 된다 돈 한푼 없어 대낮에 귀가할 때면  
큰길에 뿔려 있어도 사방이 막다른 골목이다

김중식<식당에 떨어진 빵>일부

주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모든 집 벽에는  
그의 스피커가 달려 있다 검은 구멍으로  
키보다 높은 곳에서  
그는 금지 사항을 전달한다  
소장다운 엄숙한 어조로  
군기가 덜 잡힌 주민들에게  
아기를 재우고

밥을 먹던 사람들을 부동자세로 만들며  
 샷시의 색을 통일해 주십시오  
 창에 붙인 안내 광고를 떼십시오  
 아직도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절대적이다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전윤희<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김중식의 <식당에 떨어진 방>은 이상의 <오감도 시제1호>에서 보았던, 찢려있는 대로가 막다른 골목이 되는 추상이 구체적 현실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명의 기계적 속성에 자동화한 주체는 사회적으로 고립, 의욕 상실 상태에 있다.

전윤희의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도시민은 기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사회적 조직에서의 소외양상을 관료제에서 찾았거니와 관료적인 권위는 인간을 함부로 조종하고 명령한다. 관료제는 어느 사회 집단에도 팽배해 있다. 관료제의 기계화, 분업화, 전문화 등이 비인격적, 합리적 생활원리로 사회를 지배하고 일상화한다.<sup>16)</sup>

이와 같이, 도시시의 사회적 소외는 인간이 도시사회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기계적으로 반응하는데서 발생한다. 일제하 도시에서의 민족적 소외는 이상화의 시에서, 사회적 결속과 가치가 사라진 아노미의 소외는 이상의 <오감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해방공간의 시에서 사회적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절망과 분노로 표현되는 한편, 1950년대에는 도시적 삶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는 입장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도시적 삶에 대한 막연한 긍정과 기대는 한국 사회적 소외 시의 한 맥락이 된다. 그 후 노동의 소외를 경험한 도시시는 어느새 고도 산업사회 속에서 편입되지 못하고 방

16)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181-182쪽 참조.

황하거나, 기계의 부속품처럼 인간성을 상실한 채 존재하는 시민의 모습을 일상으로 만나게 된다 할 것이다.

#### IV. 자기와 세계의 상실

도시의 삶은 특정의 전통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정당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은 매순간 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뿐이다. 전통과 권위는 파괴되고, 상대적인 관계성을 형평성 있게 적용하지도 않으며 결국에는 개인의 가치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가치기준이 상실되고, 자기 자신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된다. 경험, 생각, 행동은 시장의 욕구에 맞추어 포장된다. 자신의 존엄성, 자기동일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세계와 주체를 함께 잃어버리는 소외상황. 자기 포기과 세계 해체 현상이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망각하는 세계와 자기의 상실은 1920년대 도시시에서부터 사회적 소외 속에 내재해온 요소이지만, 도시의 처참한 파괴와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한계 사이에서 절망했던 50-60년대에 이르러 훨씬 구체적으로 토로된다.

구상(具常)의 시 <여명도(黎明圖)>, <옥상(屋上)실존>, <구상(具常)무상(無常)>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야 모두들 누깔 나오게  
잘도 돌아 가누나.

기계 기계…….

아주 맞출 길 없는 부속처럼  
너 참 비길 수 없이 호젓하이.

이놈, 까짓것 세상 까짓거  
한번 멋지게 간통하고

그 다음 한 번 웃어주고  
남 모르게 곡(哭)하고

그 답엔 휘파람 불며 불며  
근사한 구도렸다.

싱겁다, 싱거워…….

병낙이란 놈 공산당 두목  
하다 뉘 죽고

지삼인 그놈의 환상이  
화살처럼 팽팽해져  
내 가슴을 겨누다는데.

에이 중뿔난 자식들  
그 새끼들이나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 보듯 만나줬으면

날 없는 비수라도 내가슴에  
꽂고 말걸.

흥, 노골적인 진리  
연극 같구나. 쑥스러워라.

없어지거라 사라지거라  
모진 의욕아

에레베이터로 내려오다  
나는 아무것도 잊어버렸다.  
구상<육상실존>전문

사회적 연대의 바탕이 되는 윤리와 전통이 사라지고 향락과 범죄가 일상인 도시의 삶, 어디에도 맞지 않는 기계부속품처럼 내던져진, 주체의 관망적 태도. 살기등등하다가도 싱거운 연극이 되는 종잡지 못할 사회, 모든 의욕을 게워내는 부적응과 ‘아무것도 잊어버렸다’는 비문법적 언어는 세계를 조롱하며 자기 풍자에 빠진 아노미적 소외의 반응이다. 세계는 부정되며 상실된 주체는 익명의 평균인으로 배회한다.

비슷한 시기 전영경(全榮慶)의 시 <봄소동>, <우미관 근처>, <사본(私本)김선월 여사>, <회화소묘>, <간음> 등에는 도시적 생활이 일상어로 나열되고, 유머와 대조, 아이러니와 풍자로 연속 되는, 마치 술주정 과도 같은 반 해사체적 문체를 보여준다.

우리들이 마시고 취하는 종로에서 명동에서 미도파 근처 명천옥에서  
 우리들은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는  
 강이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직접 주먹이지마는  
 사랑과 돈과 이 집에서 밤마다 모두  
 사루마다에 싸고 가는 사랑과 돈과 이 집에서  
 돈 주고 기분 내고 흥분을 하고 바람이 되어 돈 주고 업어주고 안아  
 주고 눕혀주고 마시는 아득한 가슴들은 쑥발 언제나 그렇지만 언제나  
 연락선 부둣가에서 테이프가 끊어진 심정으로  
 다시 취하도록 마시는  
 우리 사람들은 산다 산다 옳다면서  
 이 강산 삼천리 삼팔선 철조망 휴전선을 끼고 금수강산 방방곡곡에서  
 수도 서울에서  
 종로에서 명동에서 미도파 근처 명천옥에서  
 재미 어때 재미 없으니 술이나 쳐먹으면서  
 인생과 세월을 보내면 아침은 오고,  
 청춘과 시간 그리고 직업을 떠나면서 황혼이 오면 인제 모든 것.  
 올 것이 오고 갈 것이 가서 살아서  
 늙어서 죽어서  
 별은 쏟아져 되지 못하게 밤인가.  
 이백환짜리 추탕과 비빔냉면 북어대가리를 안주삼아 먹으며 뜯으며

아멘 소면 잡탄 만탄 막걸리를 마시면서

영어 쇼오트 안다 유우 모른다 미이 아우아 컨츄리는 머언데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다는 북도 사람들 아라사 루스케 스루케 야쁘니마 이 쭈시 꾸시 다와이 그러한 나라 오랑캐들예세 쫓겨온 북도 사람들은 남도 사람들과 함께

이백환짜리 추탕 비빔냉면 북어대가리를 안주삼아 먹으며 뜯으며 짙은 근질근 씹으면서 화물차에 밀려서 오던 때와 같이 역정을 내면서 팔도 강산 유람을 이야기하고 낡은 집에서 이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간나 에미나이 쭈세미 판대기 다래 머루 능금 맛이 좋았다는, 꼭지 떨어진 참외 맛이 어떻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아이 자지 가풀뿐이라고 자랑은 무슨 자랑이겠느냐고, 부모형제 이웃 사람들의

고향이 이야기에서부터  
만주나 상하이나 홍콩 일본 동경 불란서 미국 정치 경제 문화 일반 등 카 페 소설 문학 예술 인간 등등 슬픈 세월을 타하는

지금은 밤 조국의 시간은 오전 한 시까진데 시계는 왜 봐, 한 되 만 더 먹자는 말이다.

인제는 술맛도 나니 슬슬해 보자는 말이란 말이다.

술 먹는다는 것은 인생에 취미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포오쯔 이 나이에 피를 토하면서 연애라는 스포오쯔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금텃 텃하게 종삼이나 목정도에까지 찾아가서 오입이라는 스포오쯔를 할 수도 없고, 야아 우리 왕서방 스타일이 꾸겨지기 전에

술이나 먹고 청춘을 이야기하고,  
인생과 청춘 계절을 이야기하면서

떠나가기 전에 산에 가기 전에 다시 반 되만 더 먹고 속이 썩으니 또 다시

반 되만 더 먹고 또 먹고 비료가 되어 몸이 비대할 수밖에 없다는  
여보 그러면 우리들은

우선 돈이 없다는 죄밖에는 있소 돈이고 뭐구 우리들이 마시고 취하는 종로에서 명동에서

미도파 근처 명천옥에서  
표준말부터 쓰자는 말이다.

전영경 <희화(戲畵)소묘>(1956,신사조)

술 퍼마시며 시간만 보내면 다시 아침이 오고, 다시 술 마시며 종잡지 못할 이야기로 지낸다. 남에게 지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는 허세와 거드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문제, 국내문제를 막론하고 종잡을 수 없게 늘어놓게 된다. 계속 술을 마심으로써 세계와 자아 상실의 슬픔을 반추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각 행의 길이가 음절수의 편차가 유난한 횡설수설, 비속어, 언어유희가 이른 곳은 결국 ‘표준말부터 쓰자’는, 공허한 시비결기일 뿐이다. 한 개인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물명확할 때,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명확성조차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무의미의 소외<sup>17)</sup>라 할 수 있다.

이는 80년대 말에 이르러 진정성이 부재하는 삶으로부터의 상상력, 블랙 유머와 그로테스크 미학, 주체성의 분해, 해체되거나 이미 죽은 자아, 왜곡된 욕망, 도착적인 성, 과잉의 쾌락주의, 희망의 소진,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세기말적 절망과 환멸 같은 것들이 도시시파 시인들의 주요 특징<sup>18)</sup>으로 이어진다.

張萬燮氏(34세, 普聖物産株式會社 총로 지점 근무)는 1983년 2월 24일 18 : 52 #26, 7, 8, 9....., 화신 앞 17번 좌석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귀에 꽂은 산요 레시바는 엠비시에프엠 “빌보드 탑텐”이 잠시 쉬고, “중간에 전해드리는 말씀,” 시엠을 그의 귀에 퍼붓기 시작한다.

쪽옥 빠라서 써버주세요. 해태 봉봉 오렌지 쥬스 삼배권!  
 더욱 커졌습니다. 롯데 아이스크림 배권입니다!  
 뜨거운 가슴 타는 갈증 마시자 코카콜라!  
 오 머신는 남자 캐주얼 슈즈 만나줄까 빼빼로네 에스에스 패션!

보성물산주식회사 총로 지점 근무, 34세의 장만섭씨는 산요 레시바를

17) R. 터커·A. 샤프 외, 조희연 옮김, 『현대소외론』, 참한, 1983, 24-25쪽.  
 18) 장석주, 『도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1990년 11월호. 문예리뷰.

벗는다. 최근 그는 머리가 벗겨진다. 배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 그는 피혁 의류 수출부 차장이 되었다. 간밤에도 그는 외국 바이어들을 만났고, “그년”들을 대주고 그도 “그년들 중의 한 년”의 그것을 주물럭거리고 집으로 와서 또 아내의 그것을 더욱 힘차게, 더욱 전투적이고 더욱 야만적으로, 주물러주었다. 이것은 그의 수법이다.

... (중략) ...

커 죠티(보성물산주식회사 장만섭 차장은 ‘일간스포츠’의 고우영만화에 대한 지독한 팬이다)

잇짜나요, 그리구,

어찌구 저찌구 해서 오늘 장만섭씨는 미스 쉐가 찬가하는 여자를 댕에 만났고, 대낮에 여관으로 갔다.

... (중략) ...

그는 거리에까지 들려나오는 전자 오락실의 우주전쟁놀이 굉음을 무심히 듣고 있다.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떠리릭 떠리릭 떠리리리리리리리릭

피웅피웅 피웅피웅 피웅피웅피웅피웅

짱! ㄱ ㄴ ㄷ ㄹ !

PLEASE DEPOSIT COIN

AND TRY THIS GAME !

또르르르르

그리고 또 다른 동전들과 바뀌어지는

송송과 피웅피웅과 짱 !

그리고 송송과 피웅피웅과 짱 ! 을 바꾸어주는, 자물쇠 채워진 동전통의 주입구(이건 꼭 그것 같애, 끊임없이 넣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야)에서,

그러나 정말로 갤럭시 우주선들이 튀어나와, 보성물산주식회사 장만섭 차장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을 기총 소사하고, 그 옆의 신문대를 폭파하고, 불쌍한 아줌마 팩 쓰러지고, 그 뒤의 고구마 튀김 청년은 끓는 기름 속에 머리를 처박고 피 흘리고 종로 2가 지하철 입구의 戰警(전경)

버스도 폭삭, 안국동 화방 유리창은 외장창, 방시능이 지하 다방 “88올림픽”의 계단으로 흘러내려가고, 화신 일대가 정전되고, 화염에 휩싸인 채 사람들은 아비규환, 혼비백산, 조계사 쪽으로, 종로예식장 쪽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쪽으로, 우미관 뒷골목 쪽으로, 보신각 쪽으로

그러나 그 위로 다시 갤럭시 3개 편대가 내려와 5천 메가톤급 고성능 핵미사일을 집중 투하, 집중 투하!

짜 자 잔

GAME OVER

한다면,

황지우<徐伐, 셔브,르, 셔브.,르, 서울, SEOUL>에서

현대 도시의 삶에서 주체는 부정된다. 직장과 직위, 주소로 표시되는 익명의 시민들이 인간적 진실이 사라진 도시적 삶을 살고 있다. 인간적인 윤리나 질서가 실종되고, 자아의 각성도 주체적 판단도 부정된다.

기성의 시 양식도 부정되고 있다. 형태 파괴와 도시적 일상의 육감적인 노출. 상표, 간판, CM송 따위의 패러디와 몽타주. 소비적 성생활과 고우영 만화와 전자오락 등 저급의 도시문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활자배열. 전자오락실 전쟁놀이의 기계적 가상세계와 실제 현실간의 경계마저 무너져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게임 오버”의 기계음에 도시의 절망과 불안, 세계상실과 자기소외의 문제가 집약된다. 익명의 일상인에 지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위화감이요 공허한 자기풍자이다. 무의미한 일상이 육감적으로 노출될 뿐인 자기 위화감, 세계와 자기해체의 소외이다.

## V. 결론

도시화가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불안이나 경제적 빈곤이

라기보다 삶의 방향을 제공하는 지표와 사회적 연대감이 파괴되는 데 있다. 바로 소외의 문제이다. 소외의 문제는 도시사회의 심각한 과제이자 도시시가 예감하고 경험해온 내면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 유형은 도시문명으로부터의 소외, 인간 사회로부터의 소외, 자기와 세계로부터의 소외 등 셋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우리 현대 도시시도 그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우리 도시시의 문학사적 맥락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된다.

근대시에 있어 문명에서의 소외는 1920년대부터 문명에 대한 갈망과 상실, 적응과 단절이라는 역방향을 동시에 갖는 모순에서 시작된다. 50년대엔 전쟁을 통해, 문명에 의한 문명 파괴의 한계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무기력을 실감하게 된다. 6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화 과정의 자연 파괴로 인한 본래적 삶의 훼손, 생태적 소외를 체험하고, 이후 물질화 기계화 사회에 편입되면서 문명에 의한 주체 상실의 자동화된 삶을 체험하게 된다. 생명력 상실의 소외에 빠지기도 하면서, 전통적 삶에서도 문명사회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문명의 소외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자아 상실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중첩된다.

둘째, 도시시의 사회적 소외는 인간이 도시사회에 유기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고립감, 박탈감에서 발생한다. 일제하에서 민족적 소외는 이상화의 시에서, 사회적 결속과 가치가 사라진 아노미적 소외는 이상의 <오감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이후,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경험한 도시시에서는 새로운 도시적 삶을 가능한 한 수용하려는 입장도 엿볼 수도 있거니와 운명적 도시 수용 의지는 사회전복의식을 가졌던 좌익문학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현실적 혼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구책이기도 하였거니와, 이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도시시와 일상시에서 이어지는 주요 요소의 하나였다 할 것이다.

80년대에 국가 권력과 자본에서의 소외, 그리고 노동의 소외를 체험한

도시시는 고도 산업사회 속에 편입되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기계의 부속품 같은, 평균인으로 존재하는 시민의 소외를 부각시키게 된다.

셋째, 세계와 자기 상실의 소외는 인간이 상표나 간판처럼 타인이 요구하는 얼굴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주체의 과멸에서 비롯한다. 이는 초기 도시시에서부터 내재되어 온 바이지만, 1950년대에 훨씬 구체화된다. 전통 윤리가 사라지고 범죄가 일상화한 도시에서 세계 혐오, 자기 조롱에 빠진다. 80년대에 이르면 산업도시사회에 사는 젊은 세대의 자아 상실감은 더 실감으로 현실화 한다.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결합으로 맥락 짓지 못하고 파편화 시키게 된다. 진정성이 상실되고 주체가 부재하는 공허한 일상이 노출된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기성의 양식을 파괴하고 일상이 육감적으로 노출되는 자기 위화감, 세계와 자기해체의 단계로 나아간다. 결국 도시시의 자아는 세계에 대응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볼 때, 도시시 논의가 1980년대 이후의 도시시에 주목하던 현상에서 탈피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시문학사의 보다 자생적인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시시는 1920년대부터 실제적으로 제작되어온 것이고, 한국 현대 시문학의 한 양식으로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조금씩 모습을 달리해온 것이다. 근대시의 출발기에서부터 이 땅의 대다수 시인들은 도시의 엘리트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일제와 미군정, 독재적 권위주의 사회를 거치는 동안, 일찌감치 고도산업사회에 못지않은 무게의 정신적 억압을 받아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백철, 유치환, 조지훈, 이어령 편 『한국전후문학전집8한국시집』 신구문화사, 1972.
- 민영, 최원식, 최두석 편 『한국현대대표시선Ⅰ』 창작과 비평사, 1990.
- 민영, 최원식, 최두석 편 『한국현대대표시선Ⅱ』 창작과 비평사, 2002.
- 민영, 최원식, 이동순, 최두석 편 『한국현대대표시선Ⅲ』 창작과 비평사, 2006.
- 오현주 엮음, 『해방기의 시문학』, 열사람, 1994.
- 권영민, 김종철, 김주연, 최동호 선정 『한국대표시인선Ⅰ』, 『한국대표시인선Ⅱ』 중앙일보사, 1995.
- 이승훈, 오세영, 최동호 기획 『탈냉전시대의 문학 시선집』, 고려원, 1996.

### <논저>

- 김영모, 「일제하의 사회계층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623-627쪽.
-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 문학과 비평사, 1992, 115-139쪽.
- 남기혁, 「1920년대 시에 나타난 도시체험」, 『겨레어문학』, 42집, 2009, 211-238쪽
-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96, 355-398쪽.
-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38-49쪽.
- 장병호, 『소외의 문학 갈등의 문학』, 시와 사람, 2008, 40-56쪽.
- 장석주, 「도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1990년 11월호, 5-7쪽.
- 정규희,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소외양상연구」, 『동남어문논집 25집』, 동남어문학회, 2008, 253-254쪽.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181-182쪽.

최정섭 역, 『식민주의와 소외』, 『프란츠 파농연구』, 한마당, 1981, 38쪽

Erich Fromm, 『The Sane Society』.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 범우사,  
1991, 114-5쪽.

Georg Lukács,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박정호, 조만영  
역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86, 249쪽.

R. 터커·A 샤프 외, 조희연 옮김, 『현대소외론』, 참한, 1983, 24-25쪽.

<Abstract>

## A Study on Alienation in Korea Urban Poetry

Shin, Jin

Urban problems are one of the major themes of modern poetry, and *alienation* would be the core of urban poetry which deals with city life.

There are three types of *alienation*—from civilization, from human society, and from the self—which can be also applied to Korean urban poetry, in which diachronic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can be found.

Firstly, *alienation from civilization* in Korean urban poetry originated in the 1920s from the simultaneous contradiction between aspiration for and denial of civilization. Expelled from both traditional life and modern civilization, the poetic narrators gradually fall to the self-absent anonymity in isolation.

Secondly, *alienation from human society* originated from the failure of organic adaptation to social system under Japanese rule. It is urban poetry's general feeling that while the poetic narrators could not adjust or could only mechanically react to urban system, they seek how to accept it.

Lastly, *alienation from the self and the world*, already inherent in Korean urban poetry of the 1920s, became much more concrete in the 1950s poetry. In the modern city where its traditional ethic has disappeared and crimes prevail, the poetic narrators fail to unite their

own experiences meaningfully, only to fragmentize them. This is a loss of whole values.

Moreover, imperialism and capitalism under Japanese rule and the US military occupation seem to have already made Korean poets experience complex isolation as an emotional suppression, no less than an industria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thought that self-awareness and search of humanity in urban poetry have already been a literary convention in Korean modern urban poetry since the 1920s rather than become manifested in the 1980s.

Key Words : urban poetry, *alienation*, *alienation*—from civilization, *alienation*—from human society, self-absent, mechanically react, *alienation*— from the self, loss of values, convention in modern poetry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3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